

천만 서울시민의 건강주치의

# 서울의료원 플러스+

Seoul Medical Center

2013.12

vol.12

01 서울의료원 소식

02~03 서울의료원 이야기

04~06 2013 충전소풍

07 새 가족소개

08 게시판



## 중국 북경시 룡하병원 임원진 서울의료원 방문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의 자매결연 병원인 중국 북경시 룡하병원 임원진이 지난 11월 22일(금) 본원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상호 교류와 학술 교류를 통해 병원 발전을 돕고 공공의료 발전을 이루기 위해 이뤄졌다. 또한 이번 방문단에는 북경시 룡하병원뿐만 아니라 통주구 룡하병원, 신화병원, 중서의학결합병원, 모자보건원, 질병관리센터 등 여러 관계자가 함께했다.

방문기간 동안 양 기관은 병원 발전과 공공의료 학술 교류에 대해 논의했으며, 방문단에게 한국 문화를 전해줄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양 의료기관은 향후 학문교류는 물론 환자 교류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서울의료원이란 이름으로 하나가 된 태국 ‘베타니 병원’ 시찰

글. 101병동 간호사 이승아



Vejthani Hospital(2013.10.30)

태국 병원 시찰을 다녀온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병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다른 파트의 선생님들과 어색하지만 설레는 첫 만남! 막내인 저를 알뜰살뜰 챙겨주신 선생님들이 벌써 그리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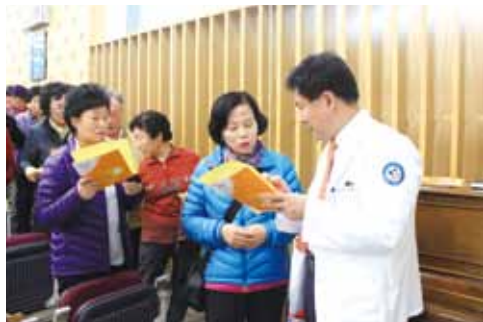
최임광 행정부원장님이 단장님으로서 태국 시찰팀을 재미있게 이끌어주셨습니다. 매일 일정을 마치고 다 같이 모여 도란도란 대화도 많이 나누고 병원의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수고해주는지 자기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병동의 우물 안 개구리였던 저에게 병원은 다양한 부서가 함께 움직이는 것이며 화합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자리였습니다. 또한 정말 왜 서울의료원이 가족 같은 병원인지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태국 병원을 시찰하며 VIP 시설이 부럽기도 했지만 의료 혜택을 모든 국민이 받지 못하는 현실을 보며 역시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파타야 산호섬에서 직위 막론한 달콤살벌한 수구게임으로 직원간의 화합을 다졌고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 없는 씨워킹도 해보고 잊지 못할 큰 추억이 되었습니다.

행정부원장님께서 사기증진을 위해 크게 한턱 내주신 것도 두고두고 추억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국시찰을 다녀오도록 배려해주신 101병동 파트장님과 동료들에게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 심장의 날 행사 ‘엄마의 혈관을 부탁해’



심혈관센터는 지난 11월 1일(금)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까지 4층 대강당에서 ‘엄마의 혈관을 부탁해’ 심장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건강강좌는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심혈관 질환을 주제로 했다. 강좌에 앞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경동맥초음파 검사가 무료로 진행돼 본인의 심혈관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는 △웃음치료(웃음치료사 박난희) △심혈관질환 식이요법(영양팀장 진혜원) △중년 심혈관질환 관리(심혈관센터장 김석연) 순으로 강좌가 진행되었고, 이후에는 검사 결과에 대한 전문의의 상담도 이뤄져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다. 김석연 심혈관센터장은 “자신의 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건강한 심장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라며, “늘 강조하지만 적당한 운동과 본인에게 맞는 식이요법을 잘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 지역사회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서울의료원은 서울 시내 의료와 복지의 협력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10월 30일(수)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협력적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서울시민의 의료복지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이뤄졌다. 이날 협약식은 김민기 의원원장과 황용규 서울사회복지협의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앞으로 양 기관은 △협력을 통한 다양한 공익적 활동 전개 △연계사업 콘텐츠 개발 △홈페이지를 활용한 사업홍보 강화 △공공의료사업단 홈페이지 제작 △상담 및 자원연계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 마련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기관, 시설, 직능단체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사회복지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촉진시켜 서울시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세워진 단체이다.

## Gukak concert

## 이야기로 찾아가는 ‘국악콘서트’



홍보팀은 문화생활을 하기 어려운 지역주민과 환우 및 보호자들을 위해 한국서도소리연구보존회의 ‘이야기로 찾아가는 국악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번 공연은 서울문화재단의 사랑의 문화나눔 사업을 통해 진행됐다.

한국서도소리연구보존회는 1987년 7월 서도소리 명창 박정옥 선생(중요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예능 이수자)이 자칫 변질되기 쉬운 평안도 황해도 소리인 서도소리의 올바른 전승과 계승 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이번 공연은 가야금·해금·아쟁·피리·대북 등의 연주와 서도소리 명창인 박정옥 선생의 해설이 있는 국악 이야기가 구수하게 펼쳐졌다. 공연은 피리연주(시나위), 장고연주(설장고), 경기민요(경북궁가 외 5편), 판소리(심청가 中)를 기본으로 하며 관람객이 함께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 사단법인 ‘다사랑회’ 가입안내

기존의 직원들 모임체 ‘다사랑회’가 관계법률에 따른 모금활동 제한 등의 한계를 넘어 더 많은 재원을 마련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공익사단법인으로 돌아왔습니다.

### 회원 가입 절차

가입신청서 → 운영진 승인 → 후원금 납부 → 가입 완료

- 가입신청서 제출방법 : 가입신청서에 친필 서명 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가입신청서 다운로드 : 서울의료원 홈페이지([www.seoulmc.or.kr](http://www.seoulmc.or.kr))

### 후원금 입금계좌

우리은행 070-070-0070

(예금주: 사단법인 다사랑회)

### 주요사업

- 저소득층 의료비 및 현물 지원 사업
- 국내외 의료봉사활동 및 구호 지원 사업
- 각종 문화행사와 자선활동, 기금 조성 및 기타수익사업

### 문의

-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서울의료원 지하 2층 다사랑회 사무국
- 전화 : 02-2276-7070
- 팩스 : 02-2276-7041
- 이메일 : [dasarang@seoulmc.or.kr](mailto:dasarang@seoulmc.or.kr)



## 2013 서울의료원 협력병원 실무자 간담회

서울의료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병원과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협력병원 진료의뢰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13. 12. 23(월)
- 장소 : 서울의료원 4층 대강당
- 대상 : 협력병원 진료의뢰 담당 실무자 (72개 병원)
- 문의 : 고객센터팀  
02-2276-7792, 7798



## 관절염 궁금증 해소 ‘관절염 건강강좌’ 개최



관절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운동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형외과는 지난 11월 28일(목) 오후 2시 4층 대강당에서 ‘관절염 건강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건강강좌에서 정형외과 김기천 과장은 관절염의 진단과 치료법, 관리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번 강좌에는 관심 있는 지역주민 및 환우 100여 명이 참석했고 강의가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을 통해 관절염 질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기천 과장은 “아침, 저녁으로 육신육신 쭈시는 관절염을 앓는 분들은 이번 강의에서 증상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며 “관절염은 조기에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개발도상국 의료인 초청교육 실시



서울의료원은 국제보건의로 교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에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해 주기 위해 지난 10월 1일(화)부터 총 3회에 걸쳐 키르기스스탄 및 네팔 의료인을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의료인 초청교육은 해마다 개발도상국 의료진에게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하여 현지 주민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진행하고 있다.

이번 1·2차 교육을 통해 키르기스스탄 9명, 네팔 2명의 의료인이 선진 의료기술을 전수 받았다. 3차 교육은 키르기스스탄 4명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6(화)부터 12월 24일(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의료취약계층 독감 예방접종



서울의료원을 포함한 9개 시립병원 직원들로 구성된 ‘나눔진료봉사단’이 지난 10월 24일(목)부터 11월 12일(화)까지 총 14회에 걸쳐 독감 발병 가능성이 높은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에 대해 무료로 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접종대상은 시설입소 노숙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으로 약 4,000여명이다.

독감 예방접종은 서울시노숙인시설협회와 쪽방상담소 등 관련 시설에서 협조하며, 9개 시립병원직원들로 구성된 ‘나눔진료봉사단’에서 연인원 82명이 교대로 참여한다. 한편 세계 최대 규모의 백신 전문 업체로써 글로벌 기업인 ‘사노피 파스퇴르’에서 1억 원 상당의 독감 백신 ‘박씨 그리프’ 3,800도스를 무료로 지원했다.

## 환자안심병원 홍보 영상 제작



홍보팀은 2014년 홍보용 달력을 제작하여 서울의료원을 대표하는 의료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달력은 대표 의료진을 홍보하기 위해 매월 한 명의 스타의사를 선정하여 캐리커처로 담았고, 이력, 전문분야, 문의전화 등에 대한 부가정보도 함께 기재했다.

서울의료원 대표 의료진을 소개하는 이번 달력은 12월초 제작이 완료될 예정이며, 서울시내 관공소, 지역 내 유관기관, 의원, 지역주민 등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달력을 통해 의료진을 소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으며 또한 일 년 내내 홍보를 할 수 있어 비용 대비 장기간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제5회 내과 개원의 연수강좌



서울의료원(원장 김민기) 내과는 지난 11월 24일(일) 오전 8시 30분부터 4층 대강당에서 ‘2013 서울의료원 내과 개원의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강좌를 통해 지역 내 200여 명의 내과 개원의를 초청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진단법 및 치료 방법을 다양한 내과 질환 증례를 통해 알아보고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노인 환자의 흔한 임상 문제와 원내 외

래에서 자주 처방되는 검사들에 대해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연수강좌는 △1부 노인 환자의 진료 시에 반드시 알아야 할 노하우 △2부 개원가에서 시행하는 검사의 백배 활용법 △3부 흔한 증상에 대한 접근 포인트로 구성돼 적절한 진단 및 치료 가이드라인과 최신 지식을 다뤘다.

이번 강좌는 내과의 다양한 과목을 체계적으로 다뤄 많은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

다. 송숙희 내과 주임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이러한 다양한 학술모임을 자주 가져 지역의료 발전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2014 서울의료원 홍보용 달력 제작



홍보팀은 2014년 홍보용 달력을 제작하여 서울의료원을 대표하는 의료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이번 달력은 대표 의료진을 홍보하기 위해 매월 한 명의 스타의사를 선정하여 캐리커처로 담았고, 이력, 전문분야 등에 대한 정보도 함께 기재했다.

이번 달력은 12월초 제작이 완료될 예정이며, 서울시내 관공소, 지역 내 유관기관, 의원, 지역주민 등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이번 달력을 통해 의료진을 소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으며 또한 일 년 내내 홍보를 할 수 있어 비용 대비 장기간 홍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2013 ‘충전 소풍’으로 소통하다

마음으로 통하는 심심(心心)한 이야기



01



소통은  
( 감성적 교감 ) 이다!

춘천 김유정문학관 - 청평사  
외과 권유진

오래전부터 기다리던 충전 소풍날이다. 동학들은 아침 일찍 ITX를 타고 춘천을 향해 떠나고, 나는 이수현 동학과 함께 오전 12시 30분에 병원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갈매역에서 내려 지하철역으로 들어서는데 소풍가는 기분에 마음이 한껏 들떴다. 아주 어렸을 때 이후 처음 느껴보는 행복한 기분이었다. 춘천역에서 기다리고 계시던 동학들과 택시를 타고 소양강댐에 도착해 배를 타고 청평사로 출발했다. 청평사로 올라가는 길에 식당들이 즐비했는데 그중 이름이 가장 특이했던 뽕순이네 식당에 들러 메밀전병과 감자전, 빙어 튀김을 먹었다. 점심 겸 간식을 배불리 먹고 단풍을 음미하며 올라간 청평사는 소담한 절이었다. 올라가는 길에 있는 계곡도 무척 아름다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가도 좋을 것 같았다. 소양강댐으로 다시 돌아와서 중국어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신 닭갈비집으로 갔다. 거기서 또 전병, 막국수, 닭갈비를 배부르게 먹고 즐거운 얘기를 나눴다. 조금 늦었지만 중국어 선생님께서 같이 합류해 주셔서 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충전 소풍을 통해 고단한 일은 잠시 잊고 감성적으로 많은 충전을 하고 새주를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병원에서 일적으로 만나 딱딱한 대화만 주고받게 되는 직장 동료에서 마주칠 때 따뜻한 말 한마디 나누고 웃음으로 인사하는 가족이 된 것 같아 무척 행복한 여행이었다.



02

서울의료원 사람들은  
( 인간 비타민 ) 이다!

간송미술관-삼청동-경복궁  
의학연구소 강병주

모니터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오신 왕미숙 팀장님.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되세요?”라고 물어보셨고, 일전에 점심을 같이 먹자고 하신 적이 있어 망설임 없이 “네”라고 대답하였다. “그럼 충전 소풍 다녀오세요.” 이렇게 일떨결에 충전 소풍에 참여하게 되었다.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지만 다시 되돌릴 수는 없었기에 나의 충전 소풍은 시작되었다. 함께 소풍을 떠나는 멤버가 전혀 모르는 분들이셨기에 걱정도 되었다. 하지만 소풍 당일 모두 모인 자리에서 괜한 걱정이었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 모두들 너무나도 반가이 맞이해 주셨다. 청와대 앞에서 삼청동길, 한옥마을 그리고 경복궁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함께 찍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 자연스럽게 동화되었다. 화창한 날씨에 좋은 사람들과 아름다운 거리를 걷는 자체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는 듯했다. 미술관 방문과 한옥마을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전경, 삼청동의 맛집인 수제비집, 특히 삼청공원의 계곡에서 웅기종기 둘러앉아 담소를 나누며 먹었던 변점숙 파트장님의 정성 가득 담긴 매생이전과 과일은 아직도 그 맛은 잊을 수가 없다. 경복궁 경회루 옆 잔디밭에 둘러 앉아 서로의 소감을 나누며 소풍을 마무리했다. 단순히 개개인의 충전을 넘어 소중한 분들을 만나고 정을 나눴던 뜻 깊은 시간이었다. 끝으로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 김민기 의료원장, 2013년 서울의료원 '소통'의 중요성 강조 올 한해 총 6회에 걸쳐 100여 명의 직원이 '충전 소풍'에 참여

'충전 소풍' 일상을 탈피해 자유로운 마음으로 직원, 부서 간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계획된 서울의료원 즐거운 직장 만들기 프로그램이다. 충전 소풍을 통해 여러 직종의 8~10명이 팀을 이뤄 소풍이라는 자유로운 형식을 통해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화랑리더쉽 △남산 둘레길 △삼청동 둘레길 △경춘선 청춘열차 △북촌한옥마을 △창경궁-대학로연극 6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 프로그램은 팀별로 개발이 가능하다. 삼삼오오 팀을 이뤄 충전 소풍을 다녀온 직원들의 즐거운 추억을 함께 공유해보자.

### • 충전소풍이란?

- 여러 직종이 한 팀을 구성하여 1일 '충전소풍' 프로그램 진행
- 팀원이 자유롭게 1일 소풍 프로그램 구성
- 팀구성은 의료직, 보건직, 행정직 및 간호직 총 8~10명으로 구성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 작성 후 간호교육팀에 제출

• 대상 | 전 직원 • 문의전화 | 내선 8007

### 충전 소풍은

( **저절로 나오는 웃음** ) 이다!

03

간송미술관-삼청동-경복궁  
병리과 이원림

소풍은 추억이 방울방울 솟아나게 만드는 말이다. 설렘에 잠 못 이루던 어릴 적이 생각나는 기분 좋은 말이다. 그런 소풍을 다 큰 어른이 되어서 다녀왔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문화생활이라곤 백만 년에 한 번일까 말까 한 내게 미술관은 너무 생소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책에서 보던 그림을 직접 보고나니 화려한 색채며 섬세한 붓놀림이며 하나하나가 감동 그 자체였다.

또 일제의 수탈에서 소중한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전 재산과 인생을 바친 간송 전형필 선생님께는 감사를 넘어 경외감마저 들었다. 좋은 가을날 멋진 성곽길 걸으며 여러 선생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삼청동에서 맛난 수제비를 흡입하고 나니 세상 부러울 것 없이 넉넉한 기분이 되었다.



### 충전 소풍은

( **이야기보따리** ) 다!

05



### 충전 소풍은

( **나의 활력 에너지** ) 다!

한성백제박물관-소마미술관  
-암사선사유적지  
영상의학과 최윤정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소풍을 드디어 가게 되었다. 삼성동에서 근무할 때는 직원들끼리 자주 볼 수 있었지만 신내동으로 이사 오고 규모가 커지면서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 것 같다. 부서마다 무슨 일이 생겼는지 누가 근무하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충전 소풍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이 생겨서 정다운 얼굴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오전에 모여서 맛있는 브런치, 모닝커피와 함께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즐거운 이야기꽃을 피웠다.

한성백제박물관에서 화려한 백제 유물을 관람하고 소마미술관에는 평소에 느껴보지 못했던 색다른 경험을 아주 좋은 분들과 나눴다.

늦은 저녁 일정을 소화하고 뒤편이에서는 가벼운 술 한 잔과 함께 더 진솔한 얘기가 오고갔다. 한 번 더 가고픈 충전 소풍이었고 내년에는 더욱 더 활성화가 되어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다.

04

한성백제박물관-소마미술관  
-암사선사유적지  
재활의학센터 이수한

병원에서 항상 바쁘게 지낸 탓에 제대로 인사도 못한 직원 분들과 하루 내내 함께한다고 생각하니 인술자로서 부담도 많이 되었다. 충전 소풍이라고 하니 김밥에 사이다, 계란이라도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걱정 반 설렘 반으로 충전 소풍을 기다렸다. 약속 시간에 모두 모여 각자의 말보따리를 풀어놓기 시작했는데, 듣다보니 '병원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항상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다른 직종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니, 내가 먼저 웃고 소통해야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우리팀은 한성백제박물관과 소마미술관에서 예전에 암기했던 국사책을 머리에서 꺼내보기도 하고, 우아하게 턱을 괴고 멋진 품을 연출하면서 미술품을 관람했다. 맛있는 점심과 오후 일정(암사 선사 유적지)을 보낸 뒤 뒤편이 시간도 가지면서 평소 못해 본 걸 정말 많이 경험했던 충전 소풍! 내년에 다시 한 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 충전 소풍은

( **달콤한 하루** )다!

06

간송미술관-삼청동-경복궁

의학도서관 이주현

충전 소풍으로 간송미술관을 다녀왔다. 1년에 봄, 가을로 15 일씩만 개관하기 때문에 주말엔 세 시간 이상을 기다려야 입장할 수 있다는 미술관.

먼저 간송미술관 설립자에 대한 책, 「간송 전형필」을 읽고 토론했다. 전형 필은 1910년대 우리나라 40대 부자 중 한 사람으로 우리의 일과 혼을 지키 기 위해 사재를 털어 그림, 도자기, 불상, 훈민정음 해례본, 탑 등을 모았다고 한다. 말년에는 빛을 지면서도 그림 한 점 팔지 않고 후대 사람들에게 자 랑스러운 문화재를 남겨 주었다. 평일이라서 기다리지 않고 입장 할 수 있어서 더 좋았으며 입을 모아 기뻐했다.

간송미술관에 오려고 몇 번이나 시도하셨다는 의무부원장 님도 참석하시고, 모르던 직원과도 밖에서 어울리다보 니 금세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 그날의 담임선생님 이 되어주신 의무부원장님이 단풍 물든 성곽길과 맛집을 안내해주시고 미리 예약한 경복궁 경 회루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니 하루가 뿌듯 하고 행복했다.



간송미술관-삼청동-경복궁

정형외과 박미미

지난 10월 25일 아침 9시, 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13명의 충전 소풍 멤버들이 한성대입구에서 모였다. 일과 육아에 쫓 기며 일상의 여유를 찾을 수 없었던 나에게 오늘 같은 기회는 말 그대로 지친 몸과 마음의 활력을 충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한참 전부터 기대 해 왔었다. 처음에는 단지 일터를 벗어나 하루 쉼다는 생각에 들었지만 텔레비 전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멋진 곳이 내가 살고 있는 서울 근처에 있었다는 사 실에 더욱 놀라운 하루를 보냈다. 역사책에서만 봤던 김홍도, 신윤복 등 유명한 화공들의 그림을 직접 볼 수 있었던 간송미술관에서의 색다른 경험, 한동안 일 반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던 숙정문 일대의 성곽을 따라 걸으며 사람의 손길 이 닿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과 고즈넉한 조선 시대 우리의 문화유산이 만들어내는 수려한 경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장엄함 그 자체였다.

단순히 하루를 놀기 위해 참석했던 충전 소풍이 진정으로 일터 나 가정에서 지쳤던 몸과 마음을 충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춘천 김유정문학관-청평사

영양팀 주수현

청명한 가을을 느끼며 금요일 아침 청량리행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 생각해보면 올해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원내 중국어 수업 을 신청한 일인 것 같다. 덕분에 좋은 선생님들을 알게 되었고, 사회복 지사 김희정 선생님의 권유로 11월 첫째 주 금요일, 병원에서 직원들에 게 선물로 주신 '충전 소풍'에 함께 가게 되었다. 오늘의 목적지는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자랑하는 춘천. ITX청춘열차 를 타고 김유정역에서 내려 먼저 레일바이크를 탔다. 4명이 한조를 이뤄 한 마음 한뜻이 되어 페달을 밟아가며 한 시간 동안 철길을 따라 하하호호 웃 으며 음악에 맞춰 춤도 추고,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이 주는 선물 을 누렸다. 김유정 문학관도 둘러보며 소설 속 주인공들과 사진을 찍으 며 추억을 남기고 오늘 소풍의 하이라이트인 청평사로 향했다.

배를 타고 떠나는 청평사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 자연이 주는 여유, 선생님들과 함께 나눈 많은 이야기, 오늘의 배려와 사랑이 병원에 돌아가 다시 활기 차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준 충전제 역할을 해주었다.



08

## 진정한 힐링은

( **사람과 자연이 주는 편안함** ) 이다!





새 가족 소개 I

마취통증의학과 정인선 과장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3년 3월부터 마취통증의학과 과장으로 근무하게 된 정인선입니다. 서울시민의 건강주치의 서울의료원에서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수술 중 마취 및 환자 감시와 처치, 마취 후 회복, 수술 후 통증 관리, 무통 분만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수술과 마취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수술 후에는 통증과 합병증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마취 전에 환자분들이 받을 마취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수술 중에는 최신 마취 장비를 이용하여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수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는 일반 마취와 함께 심폐 마취, 뇌 신경 마취, 산과 마취 등의 전문분야 마취로 구분되며, 저는 일반 마취를 비롯한 소아 마취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소아 환자는 성인보다 수술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크기 때문에 수술방에 들어가기 전부터 환자의 불안감을 줄이고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의료의 중심인 서울의료원에서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선생님들을 도와 마취통증의학과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 가족 소개 II

약제팀 박세리 약사

성실하게 배우고 소통하며 일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에 약제팀으로 입사한 약사 박세리입니다. 지방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1년간 근무했고 이번에 개인사정으로 서울에 올라오면서 서울의료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졸업한 직후 취직했던 약국에서는 일하는 것과 배우는 것이 한정적이었습니다. 물론 약국에서도 병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배웁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일을 하면 약국과는 다른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병원으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제팀 주 업무는 기본적으로 조제와 투약입니다. 또한 마약과 향정을 관리하고 항암제와 TPN을 조제하며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의 약을 감사합니다. 즉 병원의 전반적인 약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부서입니다.

이처럼 병원은 약국과 달리 체계적이고 많은 약들에 대해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많은 부서들과 소통을 할 수 있어서 병원 생활에 만족했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길지 않은 기간임에도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약국보다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싶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얻어 서울의료원에 입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이전의 병원 경험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론 속 서울의료원



KTV한국정책방송(11.1)  
지방의료원 공공성 강화,  
응급 분만 필수시설 확대



노컷뉴스(11.1)  
서울의료원 보호자 없는  
'환자안심병원' 주목



문화일보(11.12)  
'경쟁사회' 탓에 걸린  
직장인들 '망상장애'로...  
필수시설 확대

01



제8회  
감염관리  
날말퍼즐 이벤트



감염관리실은 제8회 감염주간을 맞아 지난 11월 27일(수) 오후 4시 4층 대강당에서 감염주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주간행사는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킬 뿐 아니라,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행사는 손 위생 캠페인, 감염관리 날말퍼즐 이벤트, 무균 패밀리(부서) 선정, 초청강연 등 많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었다. 특히 직원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감염관리 날말퍼즐 이벤트와 무균 패밀리 선정 행사가 눈에 띄었다.

참여방법은 감염관리 날말퍼즐 이벤트의 경우 날말퍼즐 작성 후 절취하여 지하 2층 식당 앞 1인 1회 응모하면 되며, 무균 패밀리 선정은 부서별로 예고 없이 3군데 환경 culture를 시행하여 미생물이 가장 자라지 않는 깨끗한 부서를 선별하게 된다.

다양한 행사가 끝난 뒤에는 시상식이 이어졌다. 감염관리 날말퍼즐 이벤트는 7명의 당첨자를 포상했고 무균 패밀리 선정은 병동이 최우수 부서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손 위생 우수부서와 클린왕 등 평소 감염관리에 힘써준 직원들을 격려했다.

02



KBS 수목미니시리즈  
'예쁜 남자'  
병원 장면 촬영



지난 11월 20일(수)부터 첫 방송한 KBS 수목미니시리즈 '예쁜 남자'의 병원 장면을 서울의료원에서 촬영했다. 출연 배우는 장근석, 아이유, 이장우, 한채영 등으로 드라마가 방송되기 전부터 많은 화제를 모았다. 서울의료원에서는 극중 독고마테(장근석 분)와 인중(차현정 분)이 진료실 앞에서 담당의사와 이야기하는 장면이 촬영되었다. 서울의료원 촬영장면은 12월 4일(수) 오후 10시에 방송되었다.





### 시민과 함께하는 병원 만들기



서울특별시 동부병원(원장 김경일)은 지난 11월 6일 3층 회의실에서 시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민위원 14명과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정대승 용신동장 등 각계 인사와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시민위원회가 타 공공병원에도 전파되어 주민과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만들어가는 병원의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첫인사를 전했다.

동부병원 시민위원회는 연 2회, 봄과 가을에 개최되며 이번이 두 번째 모임이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3년 상반기 결과보고 및 사업보고를 통해 3월 가졌던 1차 모임에서 나온 의견에 대한 개선여부를 되짚어보고, 시민위원회가 병원 운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했다. 또한 2014년 동부병원 사업계획에 대해 건의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통해 미래의 동부병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일 병원장은 “믿을 수 있는 주치의로서의 병원, 시민을 위한 병원, 선도적인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과 시민을 위한 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위원들의 더욱 활발한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게시판    Seoul Medical Center

| 해외 교육연수 |     |                       |      |
|---------|-----|-----------------------|------|
| 11.16   | 장웅석 | 제3차 유라시아 대장항문 술기학회 참석 | 싱가포르 |

### 함께 일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                   |                  |
|-------------------|------------------|
| 11.01 김형준(병동간호팀)  | 11.01 박상순(병동간호팀) |
| 11.01 이정현(병동간호팀)  | 11.01 백지수(병동간호팀) |
| 11.01 심예진(병동간호팀)  | 11.01 김세은(병동간호팀) |
| 11.01 김지혜(병동간호팀)  | 11.01 최수정(특수간호팀) |
| 11.01 김지인(병동간호팀)  | 11.01 정다은(특수간호팀) |
| 11.01 신지원(병동간호팀)  | 11.01 김의도(병동간호팀) |
| 11.01 오지윤(병동간호팀)  | 11.01 고은영(병동간호팀) |
| 11.11 이성민(신경과)    | 11.18 김미선(간호부)   |
| 11.18 유상희(응급의료센터) | 11.18 배상희(간호부)   |

###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                   |                  |
|-------------------|------------------|
| 11.07 윤혜상(응급의료센터) | 11.15 강현주(병동간호팀) |
| 11.15 이보라(특수간호팀)  | 11.15 오예진(병동간호팀) |
| 11.16 엄혜영(병동간호팀)  |                  |

### 결혼을 축하합니다

|                              |                  |
|------------------------------|------------------|
| 11.09 서희경(간호부)               | 11.16 주미경(간호부)   |
| 11.23 박가윤(강남분원 원무심사팀)        | 11.24 윤민희(의무기록팀) |
| 11.10 강세리(의무기록팀), 하승현(원무심사팀) |                  |

### 인사이드

장웅석 외과 주임과장 임명



### 환자 권리, 병원이 먼저 지켜드릴게요



서울특별시 북부병원(원장 권용진)은 지난 11월 5일 제1차 환자권리라운딩을 실시했다. 이른바 ‘R(right)-rounding’으로 지칭된 환자권리라운딩은 병원이 먼저 솔선수범해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병원 이용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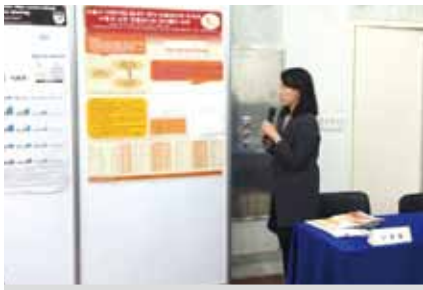
병원은 ‘R-rounding’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전문가 그룹을 운영한다. 병원 직원을 배제한 외부전문가 그룹에는 환자단체연합회의 백진영 대표, 열린사회시민연합의 주영남 대표, 법무법인 세승의 조진석 변호사가 참여했다. ‘R-rounding’의 전문가 그룹은 유동적인 변동을 통해 더욱 객관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날 처음 실시된 ‘R-rounding’에서는 원무팀 접수창구에서 접수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된 사례가 가장 많았으며, 병동의 테라스로 나가는 출입문의 완충제 결함으로 인한 환자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북부병원은 외부전문가 그룹에 의해 제기된 문제를 분석해 가능한 빠른 시일에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북부병원의 ‘R-rounding’은 매 분기 1회 개최될 예정이다.



### 홍보팀 지승준 사무관리사 ‘PR전문가’ 자격 취득

홍보팀 지승준 사무관리사는 지난 11월 20일(수) 공공병원 최초로 한국PR협회(회장 정상국, LG그룹 부사장)가 시행하는 제9회 PR전문가 자격을 취득했다. 한국PR협회는 1989년 PR산업 및 PR학회의 발전을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우리나라 민간기업, 정부기관 등 각종 단체의 PR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국내 의료계에는 총 5명(국가자격기본법 미인증 포함 시, 총 8명)이 PR전문가 자격을 취득했고 공공병원에서는 이번이 첫 자격 취득이다.



### 환경독성보건학회 포스터 우수발표상 수상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환경건강연구실 홍소영 선임연구원이 ‘2013년 환경독성보건학회 국제학술대회’ 포스터 부문에서 우수 발표상을 수상했다. ‘서울시 어린이집 실내의 먼지 프탈레이트 농도와 아동의 소변 프탈레이트 대사물의 농도’를 주제로 발표한 홍소영 선임연구원은 연구의 주제가 독창적이고 내용이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발표자로 선정되었다.